Ⅳ

對중국 수출업체 애로사항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중국은 '09년 수출액 기준 일본에 이어 2위의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 FTA 체결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 등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FTA 체결 등에 대비 원활한 對중국수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

나.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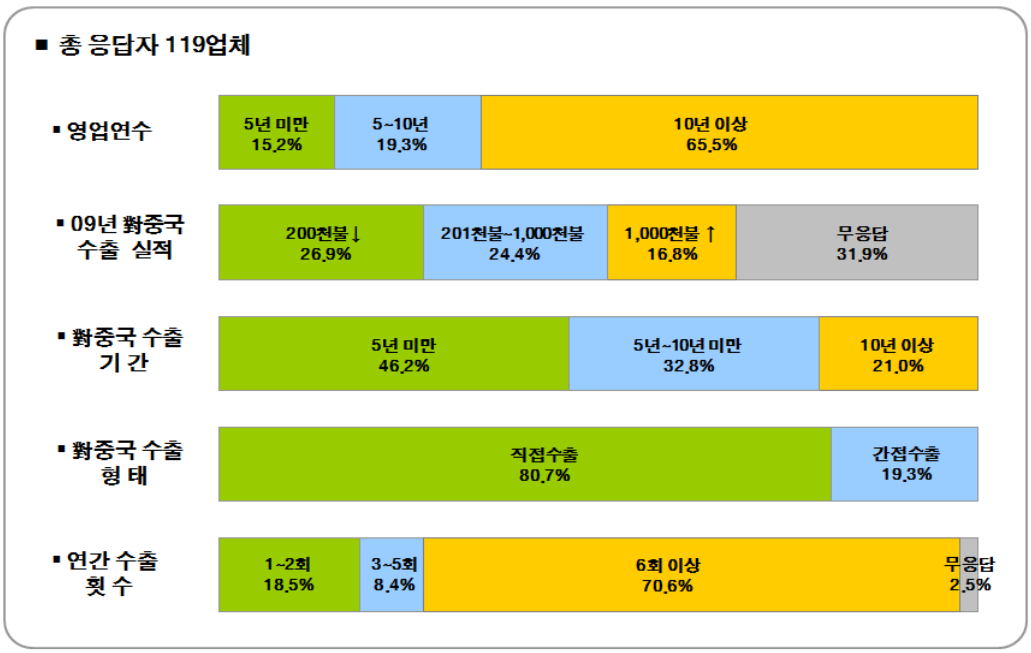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對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 / 한국무역협회 제공자료(對 중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업체)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전화조사(팩스 조사와 병행)
표본추출방법	리스트 전수조사
실사 진행	전문 리서치업체[패턴웍스]를 통해 진행
표본수	총 119업체 (367개 업체 List 중) 확보
실사 기간	2010년 10월 11일~ 10월 20일 (10일간)

다. 설문응답상황

- 대상표본 367개 업체 중 119개 업체(32.4%) 설문 성공

구 분	업체수	비 율(%)	비 고
성 공	119개	32.4	-
실 패	248개	67.6	담당자 부재, 연락처 변경 등
총 계	367개	100.0	

라. 응답자 분석



- 응답업체의 영업년수는 10년 이상이 65.5%로 가장 많으며, 5~10년이 19.3%, 5년 미만 15.2% 순임
- '09년 기준 수출실적은 20만불 이하가 26.9%, 20만불~100만불 24.4%, 100만불 이상은 16.8%로 나타남
- 수출기간은 5년 미만이 46.2%로 가장 많고, 5~10년 32.8%, 10년 이상이 21.0%임
- 수출형태는 직접 수출이 80.7%로 가장 많으며, 간접수출은 19.3%임
- 연간 수출 횟수는 연 6회 이상 70.6%, 연1~2회 18.5%, 연 3~5회가 8.4%임

2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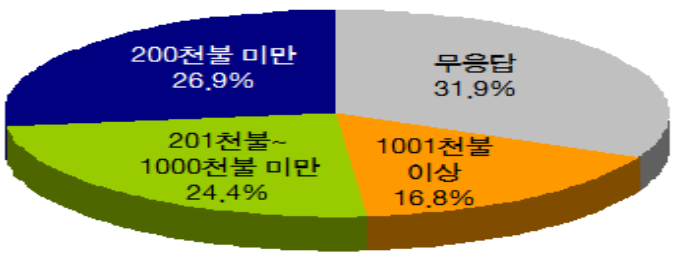
가. 중국 농식품 수출현황

1) 수출실적 및 기간

● 응답업체의 '09년 對중국 농식품 평균 수출실적은 연평균 184만2천불 정도임

■ 연간 20만불 이하가 26.9%로 가장 많고, 20만불~100만불 사이가 24.4%, 100만불 이상이 16.8% 순으로 나타남

【 09년 對중국 수출 실적 】



[전체 응답자 : 119업체]

● 연간 수출횟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수출실적이 높게 나타남

■ 품목별 : 가공식품 수출업체 수출실적이 229만3천불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산물 수출업체 159만7천불, 농산물 수출업체 70만3천불임

■ 항구별 : 청도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실적이 387만5천불로 가장 높고, 천진항이 281만4천불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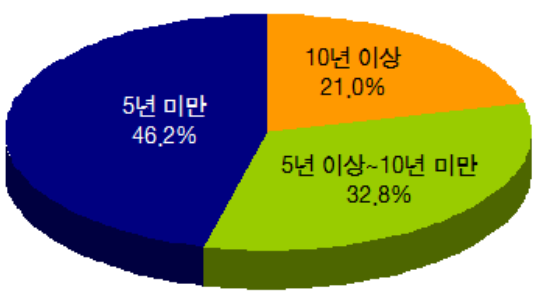
(단위 : 천불)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200천불 이하(%)	59.1	20.0	19.0	33.3	10.0	13.3	37.9	36.4	38.5	35.3	12.2	25.0	20.3
201~1,001천불(%)	13.6	10.0	29.8	0.0	30.0	30.0	19.7	18.2	17.9	11.8	29.3	33.3	26.6
1,001천불 이상(%)	4.5	10.0	21.4	0.0	15.0	20.0	19.7	0	12.8	17.6	24.4	20.8	20.3
무응답(%)	22.7	60.0	29.8	66.7	45.0	36.7	22.7	45.5	30.8	35.3	34.1	20.8	32.8
평균(천불)	152	3,970	2,215	8	703	1,597	2,293	160	1,728	2,814	3,875	1,411	2,048

수출업체의 對중국 수출기간은 평균 5.6년으로 나타남

■ 5년 미만 업체는 46.2%, 5년~10년 사이의 업체는 32.8%, 10년 이상 업체가 21.0%로 전반적으로 수출기간이 10년 이하 업체들이 약 80% 정도로 나타남

【 對중국 수출 기간 】



[전체 응답자 : 119업체]

■ 수출횟수가 3~5회인 업체의 수출기간이 평균 6.7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수출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5.7년, 농산물 5.6년, 가공식품 5.2년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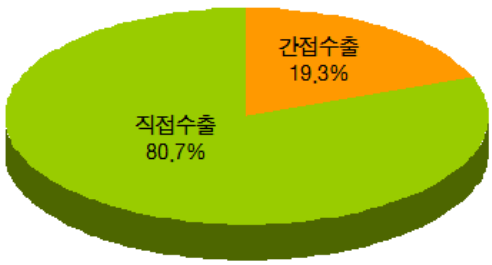
■ 수출지역 이용항구별로는 대련항이 6.5년, 다음으로 천진항 6.3년, 청도항 6.1년, 상해항은 6.0년으로 나타남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5년 미만 (%)	81.8	50.0	36.9	33.3	40.0	43.3	54.5	27.3	35.9	47.1	41.5	37.5	43.8
5년 이상~10년 미만 (%)	4.5	30.0	39.3	66.7	45.0	33.3	25.8	36.4	38.5	17.6	31.7	29.2	35.9
10년 이상 (%)	13.6	20.0	23.8	0.0	15.0	23.3	19.7	36.4	25.6	35.3	26.8	33.3	20.3
평균 (년)	4.3	6.7	5.8	6.0	5.6	5.7	5.2	7.8	6.0	6.3	6.1	6.5	5.8
평균(천불)	152	3,970	2,215	8	703	1,597	2,293	160	1,728	2,814	3,875	1,411	2,048

2) 수출형태

- 對중국 수출형태를 살펴보면, 조사업체의 80.7%가 직접 수출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개상을 통한 간접 수출하는 업체는 19.3%로 낮게 나타남

【 對중국 수출 형태 】



[전체 응답자: 119업체]

- 전반적으로 수출형태는 수출횟수, 수출품목, 항구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수출 횟수가 많은 업체의 직접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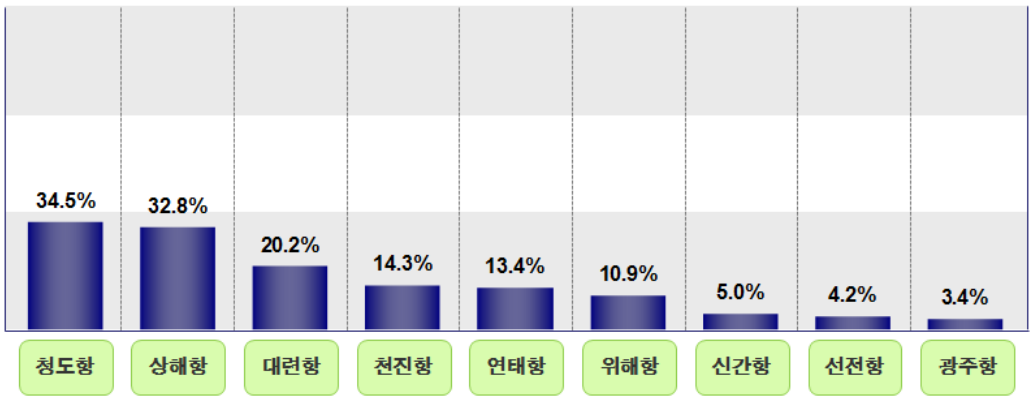
- 수출 부류별로는 농수산물보다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직접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항구별로는 대련항이 타 항구에 비해 직접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직접수출 (%)	68.2	90.0	84.5	33.3	75.0	80.0	84.8	72.7	79.5	82.4	75.6	87.5	82.8
간접수출 (%)	31.8	10.0	15.5	66.7	25.0	20.0	15.2	27.3	20.5	17.6	24.4	12.5	17.2

3) 수출시 이용항구

- 중국으로 수출시 청도항이 34.5%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상해항(32.8%), 대련항(20.2%), 천진항(14.3%), 연태항(13.4%), 위해항(10.9%) 등의 그 뒤를 이음

【 중국내 수출 지역 항구 】



(전체 응답자 :119업체, 복수응답, 일부소수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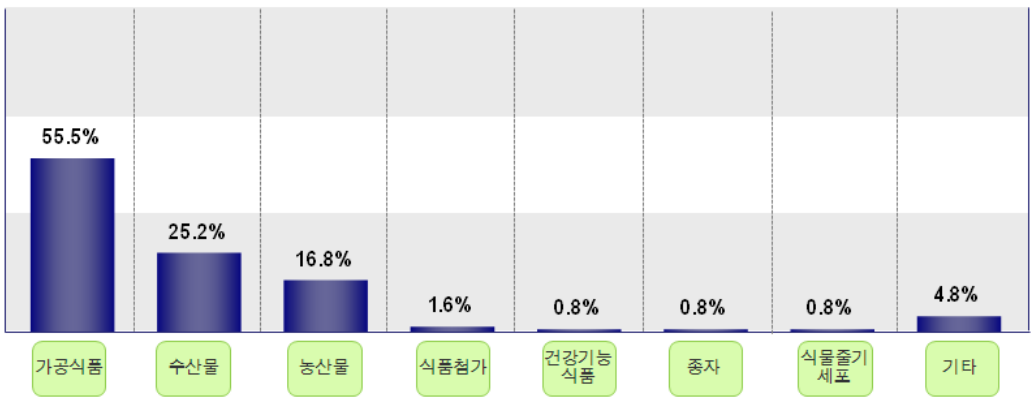
- 품목별로 항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수출업체는 청도항,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상해항 이용 비율이 높음

구 분	'09년 對중국 수출실적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200천불 이하	201천~1000천불	1001천불 이상	무응답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응답자(업체)	32	29	20	38	22	10	84	3	20	30	66	11
청도항 (%)	15.6	41.4	50.0	36.8	22.7	30.0	36.9	66.7	50.0	43.3	27.3	18.2
상해항 (%)	46.9	24.1	25.0	31.6	18.2	50.0	33.3	66.7	25.0	6.7	47.0	36.4
대련항 (%)	18.8	27.6	25.0	13.2	4.5	10.0	26.2	0.0	10.0	33.3	16.7	9.1
천진항 (%)	18.8	6.9	15.0	15.8	13.6	20.0	13.1	33.3	5.0	6.7	22.7	9.1
연태항 (%)	9.4	10.3	20.0	15.8	9.1	30.0	13.1	0.0	10.0	33.3	7.6	0.0
위해항 (%)	9.4	3.4	15.0	15.8	13.6	10.0	10.7	0.0	0.0	30.0	7.6	0.0
신간항 (%)	9.4	3.4	10.0	0.0	4.5	0.0	6.0	0.0	0.0	0.0	7.6	9.1
선전항 (%)	0.0	3.4	10.0	5.3	0.0	10.0	3.6	33.3	0.0	3.3	6.1	0.0
광주항 (%)	6.3	3.4	5.0	0.0	9.1	10.0	1.2	0.0	5.0	3.3	1.5	9.1

4) 수출품목

-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식품이 응답의 55.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산물 25.2%, 농산물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對중국 수출 분야 】



(전체 응답자:119업체, 복수응답)

- 수출기간별로 살펴보면, 수출기간이 5년 미만인 업체는 가공식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천진항을 이용하는 업체는 가공식품이, 대련항은 수산물, 청도항은 농산물 수출비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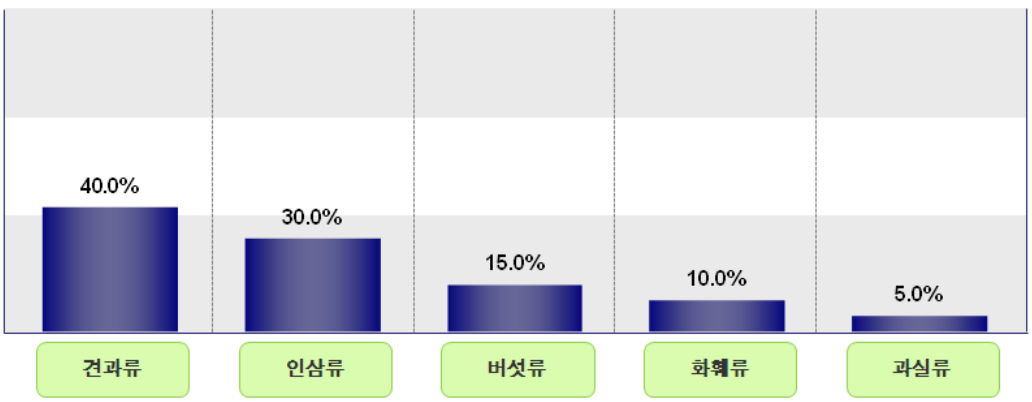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기간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55	39	25	39	17	41	24	64
가공식품 (%)	50.0	50.0	56.0	100.0	65.5	43.6	52.0	79.5	88.2	43.9	45.8	43.8
수산물 (%)	22.7	40.0	25.0	0.0	23.6	25.6	28.0	5.1	11.8	31.7	41.7	35.9
농산물 (%)	18.2	0.0	19.0	0.0	14.5	23.1	12.0	12.8	5.9	24.4	8.3	15.6
식품첨가물 (%)	0.0	10.0	1.1	0.0	0.0	2.5	3.7	2.4	0.0	2.3	0.0	0.0
건강기능식품 (%)	4.2	0.0	0.0	0.0	1.7	0.0	0.0	0.0	0.0	0.0	0.0	1.5
종자 (%)	4.2	0.0	0.0	0.0	0.0	0.0	3.7	0.0	0.0	0.0	0.0	1.5
식물줄기세포 (%)	0.0	0.0	1.1	0.0	1.7	0.0	0.0	0.0	0.0	0.0	0.0	1.5
기타 (%)	8.4	0.0	4.4	0.0	3.4	5.0	7.4	7.2	5.3	2.3	4.2	4.5

① 농산물

• 견과류가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삼류 30.0%, 버섯류 15.0%, 화훼류(10.0%), 과실류(5.0%)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견과류 중 밤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삼류는 홍삼, 인삼, 건삼, 뿌리삼 등 버섯류는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화훼류는 심비디움, 과실류는 사과, 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세부 수출분야]



구체적 수출품목

견과류		인삼류		버섯류		화훼류		과실류	
밤	40.0%	홍삼	15.0%	팽이버섯	15.0%	심비디움	10.0%	사과	5.0%
		인삼	5.0%	새송이버섯	5.0%			배	5.0%
		건삼	5.0%						
		뿌리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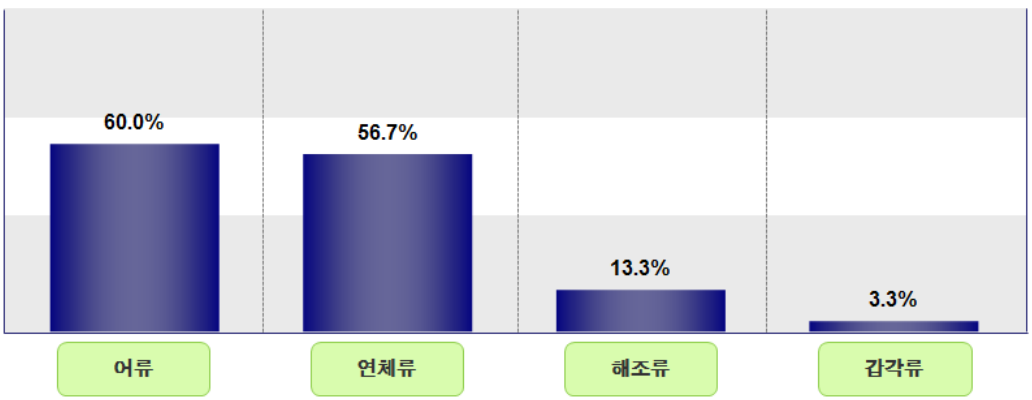
(응답자:20업체, 복수응답, 일부소수응답 제외)

② 수산물

• 수산물 세부 수출품목은 어류가 6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연체류 56.7%, 해조류 13.3%, 갑각류 3.3% 순으로 나타남

- 어류는 고등어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삼치, 전갱이, 방어 등이며, 연체류는 냉동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다리, 해조류는 김, 갑각류 킹크랩 등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산물 세부 수출분야]



구체적 수출품목

어류류				연체류		해조류		갑각류	
고등어	20.0%	명태	6.7%	냉동오징어	50.0%	김	10.0%	킹크랩	3.3%
삼치	16.7%	동태	6.7%	갑오징어	3.3%				
전갱이	13.3%	건조해삼	6.7%	오징어다리	3.3%				
방어	13.3%	메가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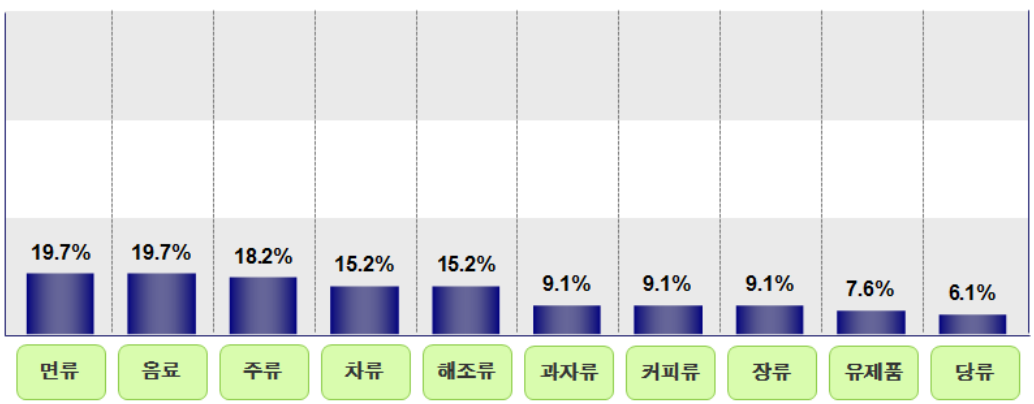
(응답자:30업체, 복수응답, 일부소수응답 제외)

③ 가공식품

• 가공식품 세부 수출 품목은 면류와 음료가 각각 1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류, 차류, 해조류, 과자류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면 류 : 라면이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면류, 쌀국수, 국수 등임
- 음 료 : 과일음료, 비타민음료, 쌀음료, 알로에 음료 등
- 주 류 : 소주, 막걸리, 약주, 전통주 등
- 차 류 : 유자차가 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추차, 생강차, 알로에차 등
- 해조류 : 조미김이 15.2%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과자류 : 스낵/과자, 캔디, 홍삼캔디
- 장 류 : 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 등의 품목을 수출

[가공식품 세부 수출분야]



구체적 수출품목

면류		음류		주류		차류		과자류		장류	
라면	13.6%	과일음료	3.0%	소주	7.6%	유자차	16.7%	스낵/과자	6.1%	고추장	9.1%
면류	3.0%	비타음료	3.0%	막걸리	6.1%	대추차	4.5%	캔디	1.5%	된장	7.6%
쌀국수	1.5%	쌀음료	1.5%	약주	4.5%	생강차	3.0%	홍삼캔디	1.5%	간장	6.1%
국수	1.5%	알로에음료	1.5%	전통주	3.0%	알로에차	3.0%			쌈장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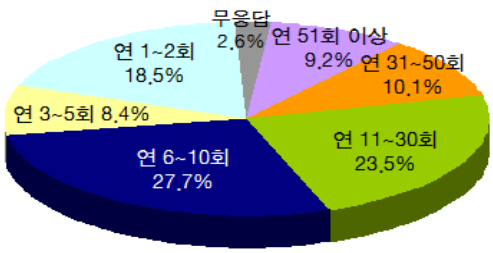
(응답자:66업체, 복수응답, 일부소수응답 제외)

5) 수출횟수

●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의 연간 수출 횟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약 26회 정도로 파악되었음

■ 연 6~10회 정도 수출하는 업체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연 11~30회는 23.5%, 연 1~2회는 18.5% 순으로 나타남

[對중국 연간 수출 횟수]



[전체 응답자:119업체]

● 수출 실적이 클수록 수출횟수도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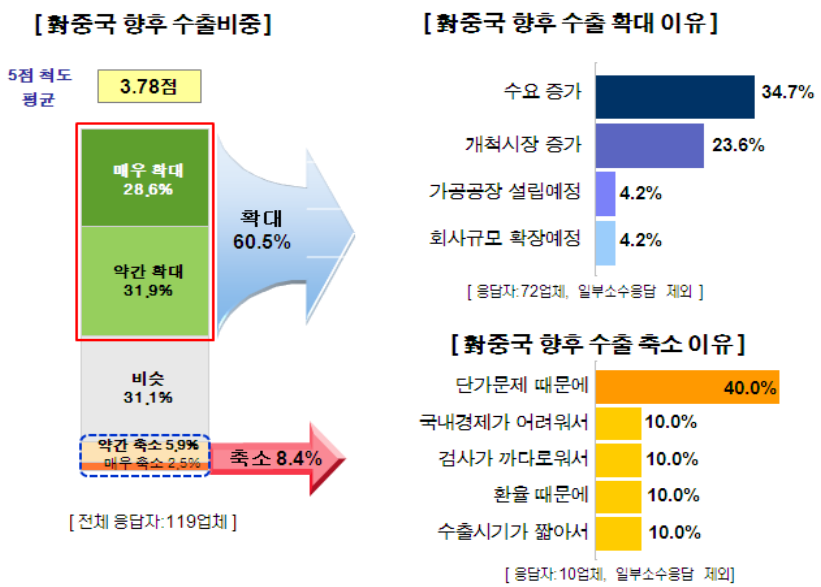
■ 품목별 : 가공식품이 연 평균 33.0회로 가장 많은 수출 횟수를 보였으며, 농산물 24.8회, 수산물 14.2회의 수출 횟수를 보임

■ 항구별 : 대련항이 43.8회로 가장 높은 수출횟수를 보인 반면 천진항은 13.7회로 타 항구 대비 적은 수출 횟수를 보임

구 분	'09년 對중국 수출실적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200천불 이하	201천~1000천불	1001천불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32	29	20	38	20	30	66	11	39	17	41	24	64
연 1~2회 (%)	40.6	10.3	5.0	13.2	20.0	16.7	16.7	36.4	10.3	17.6	12.2	4.2	18.8
연 3~5회 (%)	6.3	3.4	5.0	15.8	0.0	13.3	7.6	9.1	12.8	11.8	7.3	4.2	9.4
연 6~10회 (%)	28.1	44.8	15.0	21.1	25.0	33.3	27.3	27.3	30.8	35.3	26.8	33.3	21.9
연 11~30회 (%)	12.5	31.0	25.0	26.3	30.0	26.7	21.2	18.2	17.9	17.6	29.3	33.3	25.0
연 31~50회 (%)	6.3	6.9	30.0	5.3	10.0	6.7	13.6	0.0	7.7	11.8	14.6	8.3	10.9
연 51회 이상 (%)	3.1	3.4	20.0	13.2	15.0	3.3	9.1	9.1	15.4	0.0	4.9	16.7	10.9
평균 (회)	10.1	15.0	53.3	34.7	24.8	14.2	33.0	16.5	40.2	13.7	38.4	43.8	27.9

6) 향후 수출계획 및 전망

- 응답업체의 약 60.5%가 향후 對중국 수출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다고 응답
  - 수출확대 사유 : 수요 증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개척시장 증가 23.6% 등의 순임
  - 수출축소 사유 : 단가문제가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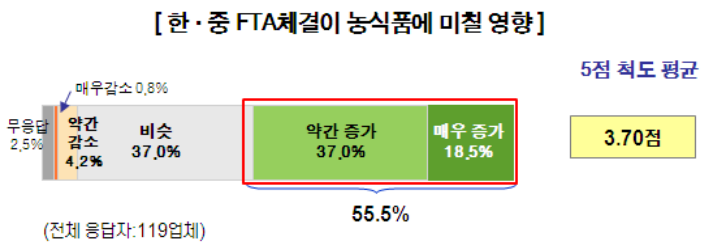


- 연간 수출횟수가 적은 업체일수록 향후 對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향후 對중국 수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함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매우확대+약간확대(%)	4.5	0	10.7	0	5.0	10.0	7.6	9.1	7.7	5.9	12.2	8.3	4.7
매우축소+약간축소(%)	68.2	30.0	60.7	100.0	55.0	60.0	68.2	36.4	51.3	82.4	58.5	66.7	68.8
5점 평균 (점)	4.00	3.30	3.76	4.33	3.80	3.63	3.94	3.45	3.62	4.24	3.76	3.88	3.94

7) 향후 한 · 중 FTA 체결시 수출전망

-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 중 55.5%가 향후 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5%로 한중 FTA 체결 이후 업체들은 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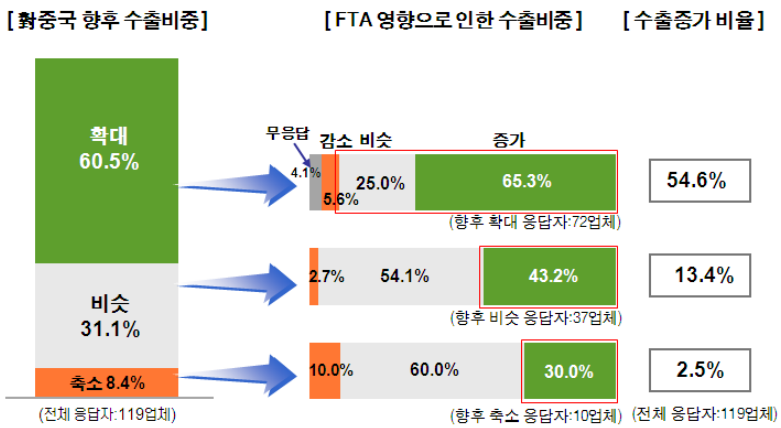


- 연간 수출 횟수별로 보면 수출횟수가 많을수록 한 · 중 FTA가 수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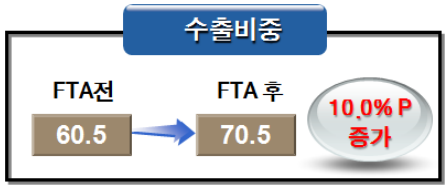
- 수출 부류별로는 수산물 및 가공식품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한 · 중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인식하였으며,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대련항구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타 항구를 이용하는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인식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매우증가+약간증가(%)	9.1	10.0	3.6	0.0	10.0	6.7	3.0	0.0	5.1	5.9	9.8	4.2	4.7
매우감소+약간감소(%)	63.6	40.0	53.6	100.0	45.0	56.7	57.6	63.6	51.3	52.9	51.2	58.3	60.9
5점 평균 (점)	3.59	3.50	3.73	4.33	3.45	3.76	3.75	3.80	3.58	3.75	3.54	3.70	3.83

- 향후 對중국 수출 확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약 90.3%,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43.2%, 수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약 30.0%가 한 · 중 FTA 체결 후 對중국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 향후 對중국 수출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비율은 60.5%, FTA 체결로 수출이 증가할 것 예측한 업체는 70.5%로 나타나 한·중 FTA 체결로 수출비중이 10.0%p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對중국 수출업체들에게 한 · 중 FTA는 향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한 · 중 FTA 체결은 전반적으로 FTA 체결 전보다 수출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천진항 이용 업체는 FTA 체결 후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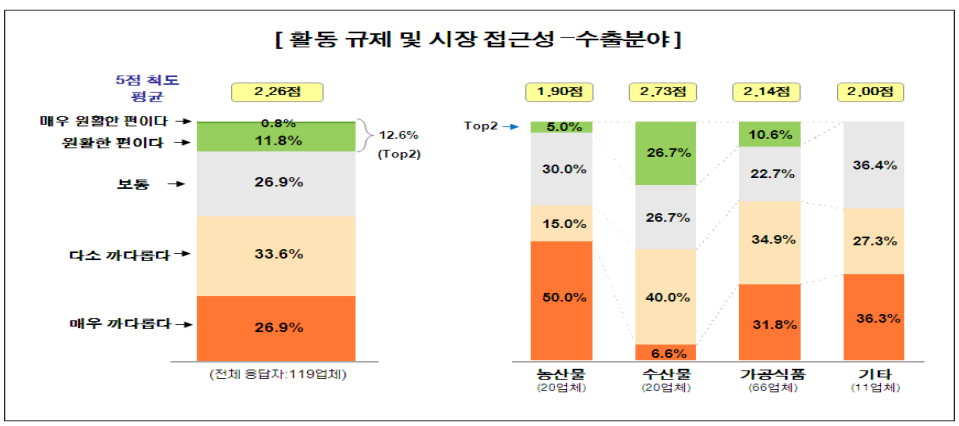
수출비중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FTA전 증가(%)	68.2	30.0	60.7	100.0	55.0	60.0	68.2	36.4	51.3	82.4	58.5	66.7	68.8
FTA후 증가 (%)	81.8	50.0	69.1	100.0	60.0	76.7	74.2	72.7	61.5	70.6	68.3	75.0	79.7
수출증가비중(%)	▲13.6	▲20.0	▲8.4	-	▲5.0	▲16.7	▲6.0	▲36.3	▲10.2	▼11.8	▲9.8	▲8.3	▲10.9

나. 對중국 수출업체 애로사항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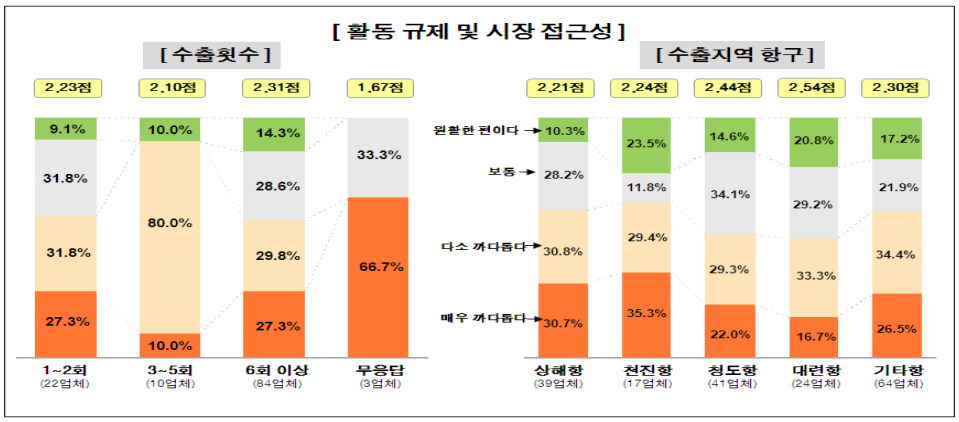
1) 對중국 수출 시장접근성

- 對중국 수출시 시장 접근성에 관해 응답자의 60.5%가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다소 까다롭다고 응답하였음

  ■ 수산물의 경우 타 국가 대비 활동규제 및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산물의 경우 50.0%가 매우 까다롭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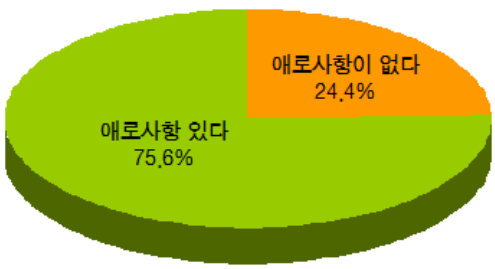
- 수출 횟수별,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활동 규제 및 시장 접근에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나, 수출 횟수별로는 3~5회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까다롭다는 의견이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천진항, 대련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활동규제 및 시장 접근이 타 항구를 이용하는 업체들 대비 원활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남



2) 수출시 애로사항

- 응답자의 75.6%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對중국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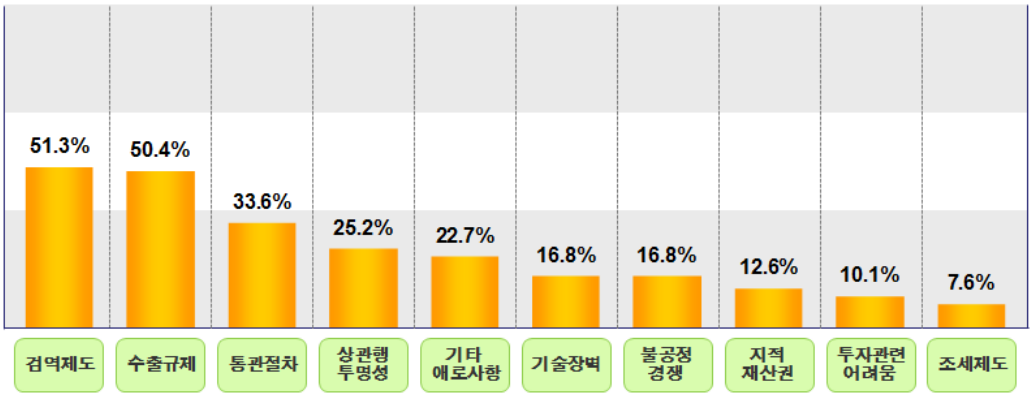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119업체]

- 수출횟수별로 살펴보면, 수출횟수가 적은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출 횟수가 많은 업체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 항구별로 살펴보면, 대련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반면, 상해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상대적으로 낮음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22	10	84	3	20	30	66	11	39	17	41	24	64
애로사항 있다 (%)	68.2	80.0	77.4	66.7	75.0	76.7	72.7	72.7	71.8	76.5	78.0	79.2	78.1

- 중국 수출관련 애로사항 중 응답자의 51.3%가 검역제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수출규제 50.4%, 통관절차 33.6%, 상관행 투명성 25.2%, 기술장벽 16.8%, 불공정 경쟁 16.8%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對중국 수출 관련 애로사항 종류]



(전체 응답자:119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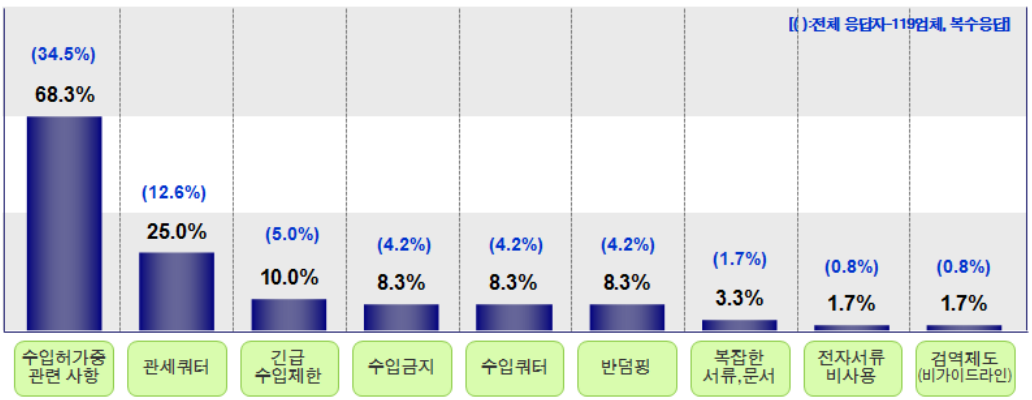
- 수출 기간별 : 중국과 수출기간이 오래된 업체일수록 수출규제, 검역제도, 통관절차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간이 5년 미만인 업체는 상관행 투명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부류별 : 대부분 가공식품 수출업체가 수출규제, 검역제도, 통관절차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항구별로는 큰 차이 없이 수출규제와 검역제도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으나, 천진항과 대련항에서는 통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수출기간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55	39	25	20	30	66	11	39	17	41	24	64
수출규제 (%)	49.1	48.7	56.0	45.0	30.0	59.1	63.6	48.7	58.8	43.9	50.0	50.0
검역제도 (%)	49.1	46.2	64.0	50.0	50.0	53.0	45.5	46.2	47.1	48.8	54.2	59.4
통관절차 (%)	30.9	33.3	40.0	30.0	33.3	34.8	27.3	30.8	47.1	34.1	45.8	31.3
기술장벽 (%)	21.8	12.8	12.0	20.0	13.3	18.2	18.2	17.9	29.4	19.5	12.5	14.1
상관행 투명성(%)	29.1	20.5	24.0	20.0	36.7	24.2	9.1	15.4	17.6	34.1	25.0	28.1
조세제도 (%)	3.6	10.3	12.0	10.0	3.3	7.6	18.2	5.1	17.6	4.9	8.3	7.8
불공정경쟁 (%)	9.1	28.2	16.0	15.0	20.0	15.2	18.2	15.4	23.5	17.1	16.7	18.8
지적재산권 (%)	10.9	5.1	28.0	10.0	0.0	18.2	18.2	12.8	23.5	4.9	4.2	12.5
투자관련 어려움 (%)	9.1	5.1	20.0	20.0	13.3	6.1	9.1	5.1	5.9	14.6	12.5	12.5
기타 애로사항 (%)	21.8	15.4	36.0	15.0	20.0	22.7	45.5	17.9	23.5	19.5	25.0	21.9

① 수출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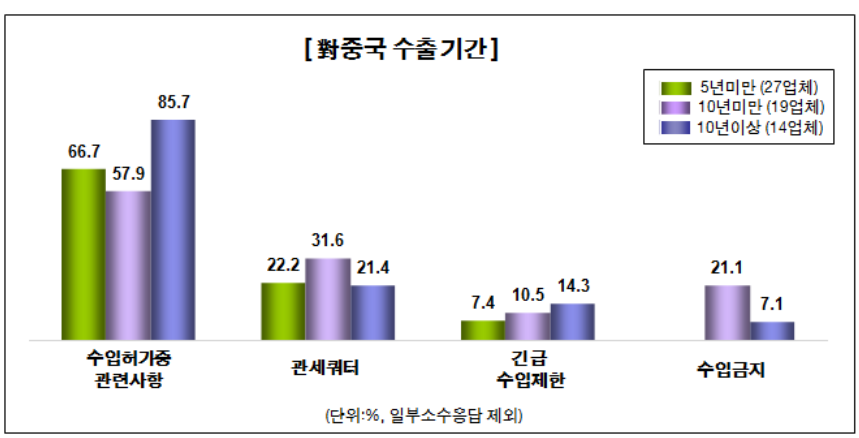
• 수출규제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사항은 수입허가증 관련 사항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관세쿼터(25.0%), 긴급수입제한(10.0%) 순으로 나타남

[수출 규제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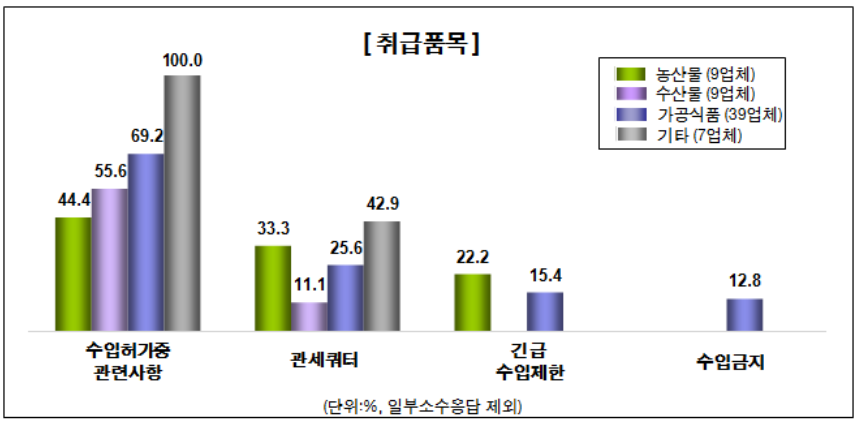


(응답자:60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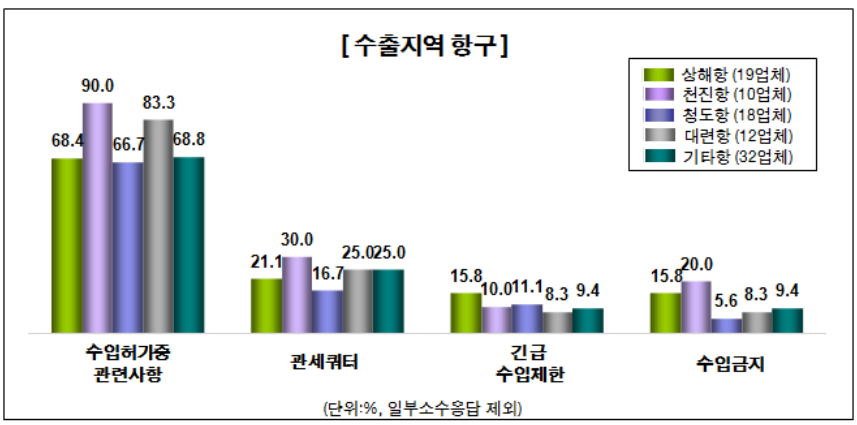
- 수출기간이 긴 업체일수록 수입허가증 관련 사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수입허가증 관련사항과 수입금지 관련 사항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으며, 관세쿼터와 긴급 수입제한 사항에서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 대비 다소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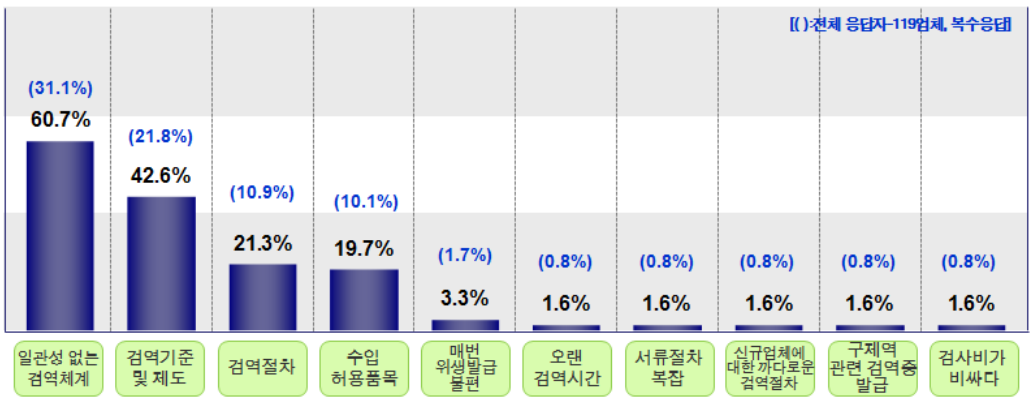
- 천진항과 대련항 이용 시 타 항구 대비 수입허가증 관련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위생검사, 검역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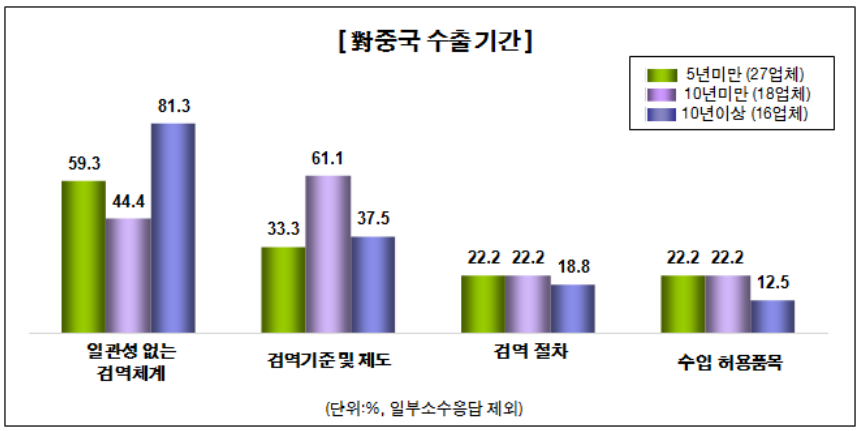
• 위생검사 및 검역제도 관련,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에 대한 애로 사항을 60.7%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검역기준 및 제도(42.6%), 검역절차(21.3%), 수입허용품목(19.7%)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위생검사,검역제도 상의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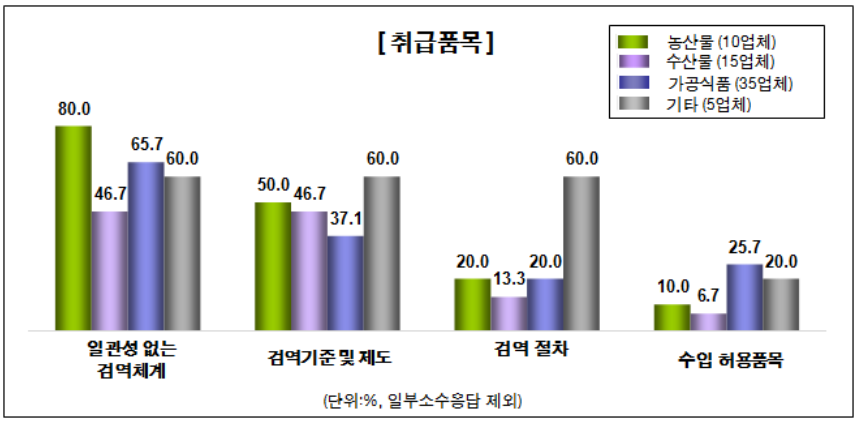


(응답자:61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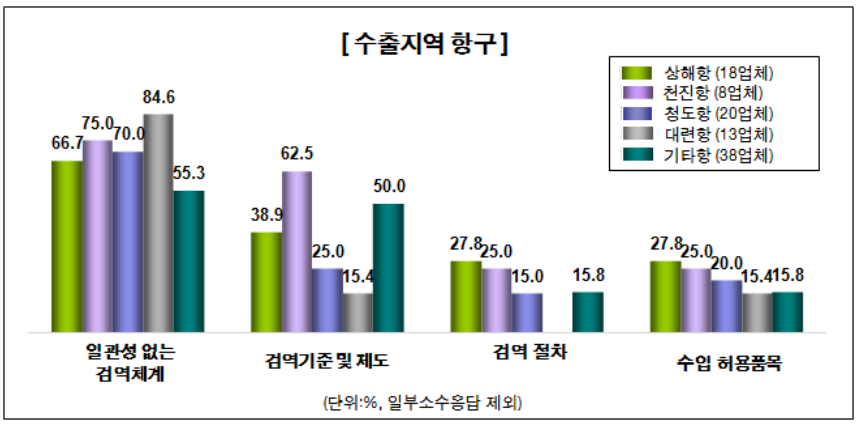
- 수출기간이 10년 이상 된 업체는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기간이 10년 미만인 업체는 검역기준 및 제도에 대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에 비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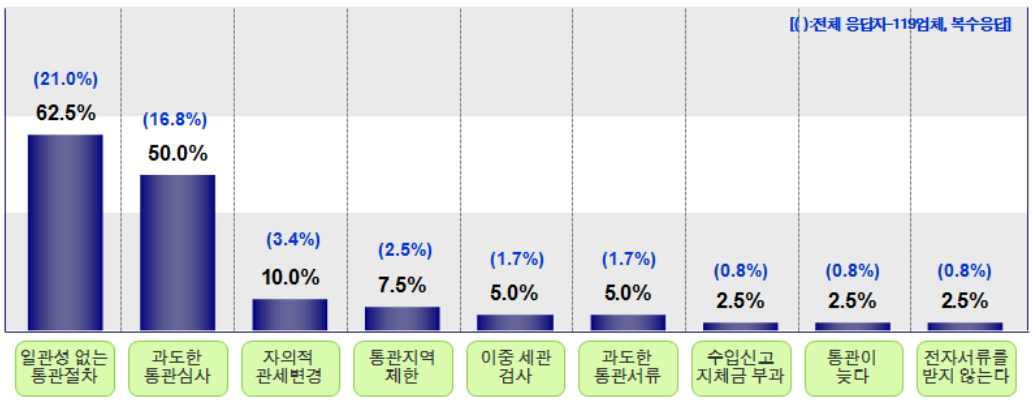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모든 항구에서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 사항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천진항은 검역기준 및 제도에 대해 느끼는 애로사항이 타 항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③ 통관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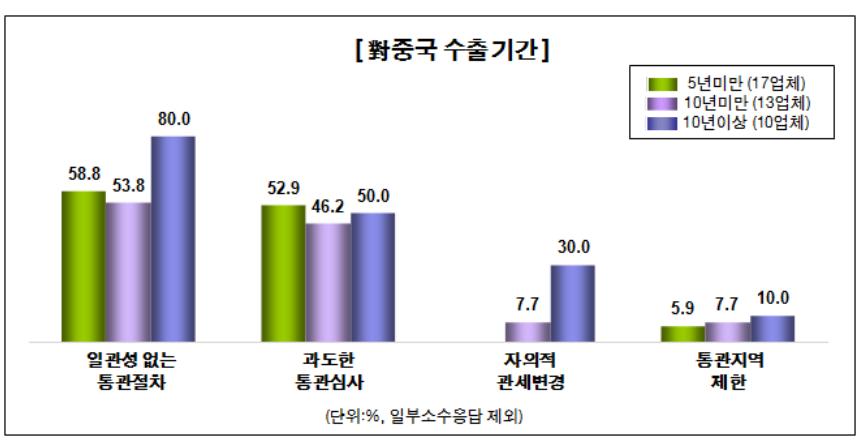
• 수출시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2.5%가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통관심사(50.0%), 자의적 관세변경(10.0%), 통관지역 제한(7.5%) 등 순임

[통관절차 상의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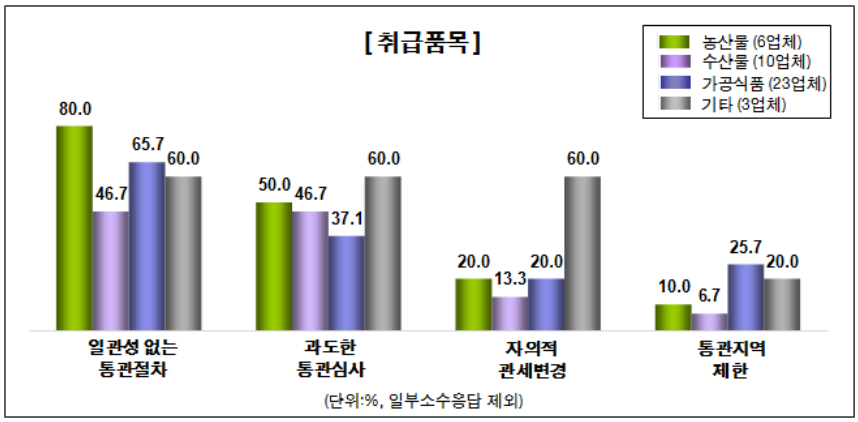


(응답자:40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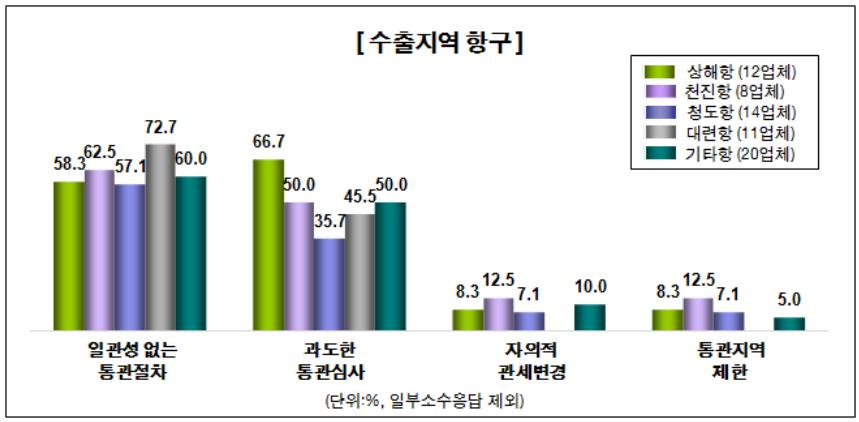
- 수출 기간이 긴 업체의 경우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수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체에서는 과도한 통관심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서는 통관지역 제한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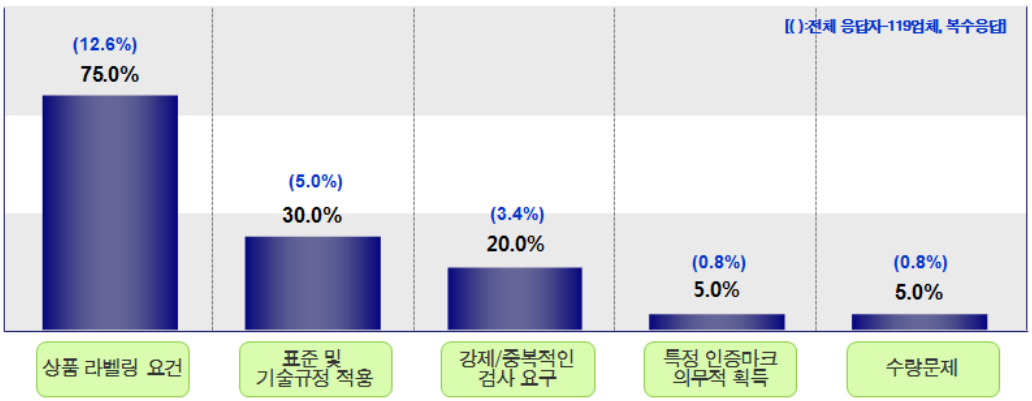
- 수출지역 항구별로 살펴보면, 상해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과도한 통관심사, 청진항과 대련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④ 기술장벽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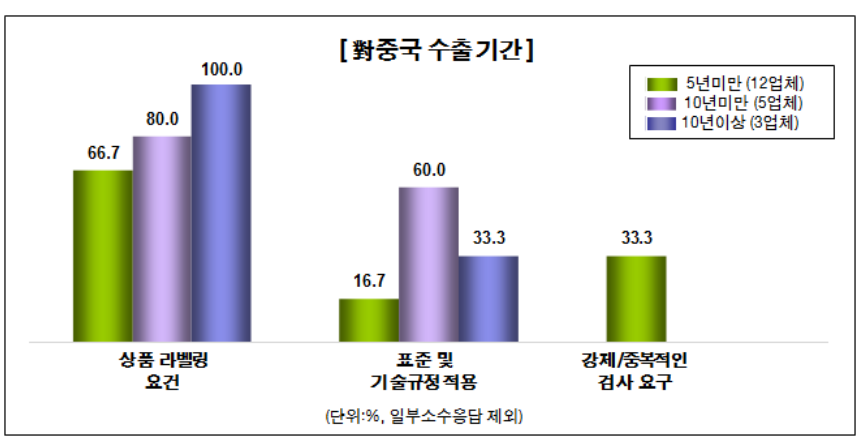
•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응답업체의 75.0%가 상품 라벨링 요건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표준 및 기술규정 적용(30.0%), 강제/중복적인 검사 요구(20.0%) 등의 순임

[기술장벽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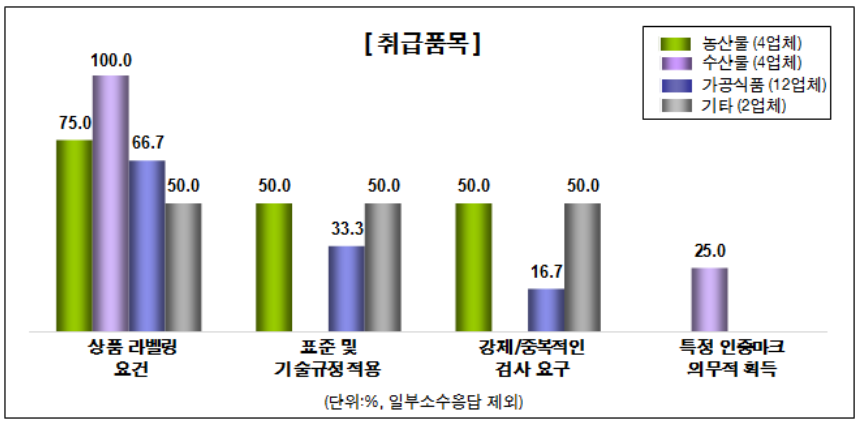


(응답자:20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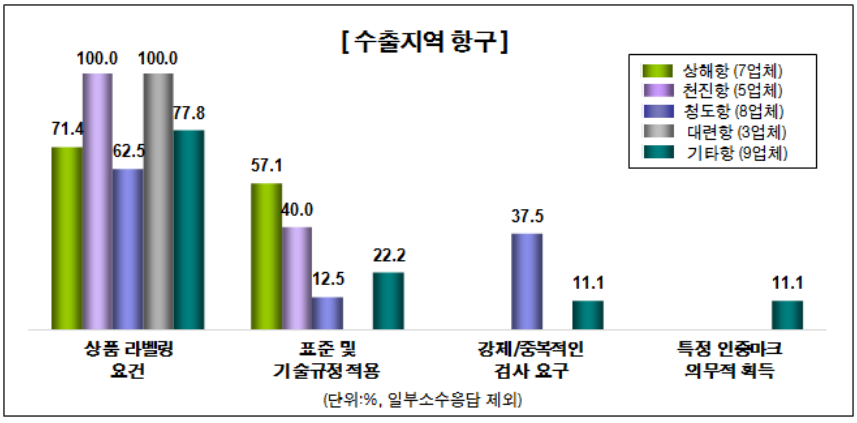
- 수출 기간이 오래된 업체에서는 상품 라벨링 요건에 대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수출기간이 5년 미만인 업체들은 상품 라벨링 요건과 강제/중복적인 검사 요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품목별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큰 차이는 없지만,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상품 라벨링 요건,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및 기술규정 적용, 강제/중복적인 검사 요구에 대한 애로사항을 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 대비 다소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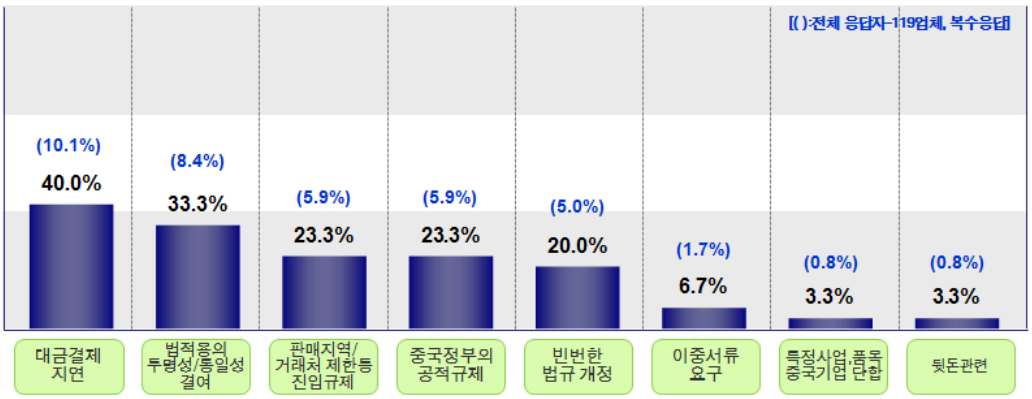
- 수출지역 항구별로 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천진항과 대련항은 상품 라벨링 요건, 상해항은 표준 및 기술규정 적용, 청도항은 강제/중복적인 검사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⑤ 상관행의 투명성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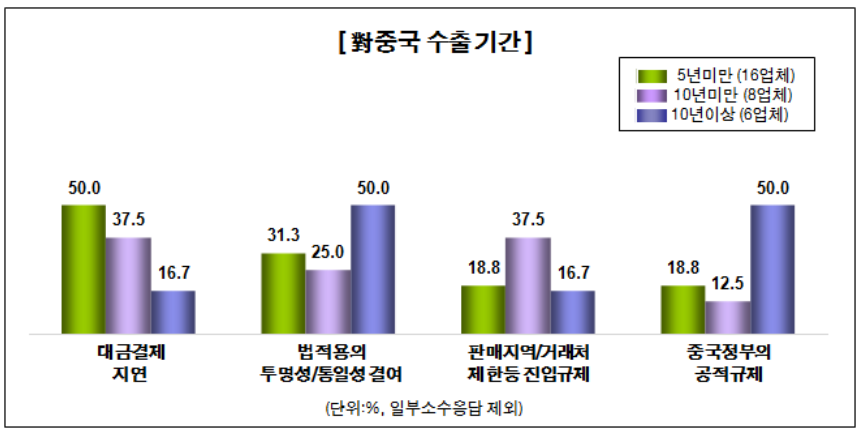
• 중국 수출업체가 상관행의 투명성 관련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사항은 대금 결제 지연이 40.0%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법적용의 투명성 및 통일성 결여(33.3%), 판매지역 및 거래처 제한 등의 진입규제(23.3%), 중국정부의 공적규제(23.3%)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관행의 투명성 관련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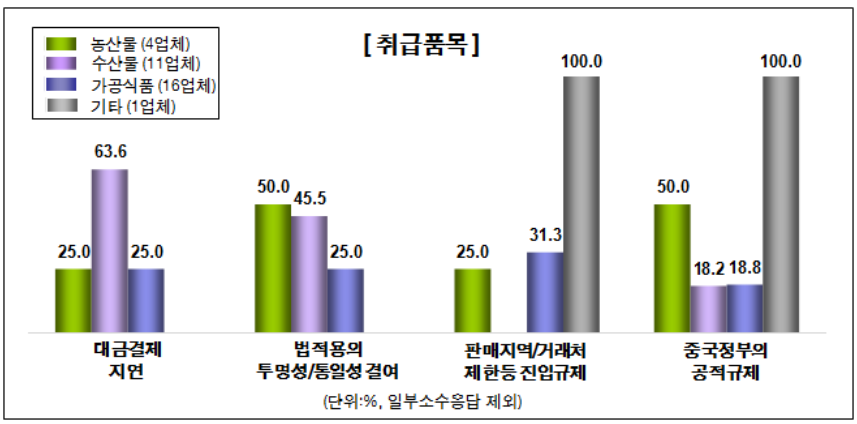


(응답자:30업체,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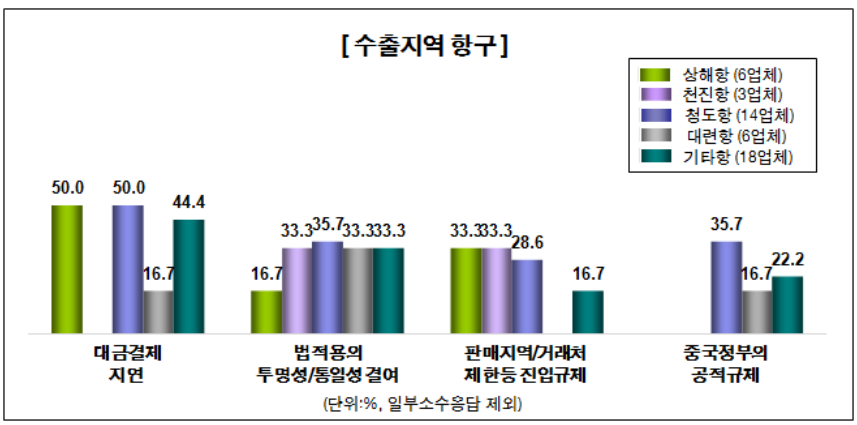
- 중국 수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업체들은 법적용의 투명성/통일성 결여와 중국정부의 공적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출 기간이 적은 업체일수록 대금 결제 지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대금결제 지연,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법적용의 투명성 및 통일성 결여,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판매지역/거래처 제한 등 진입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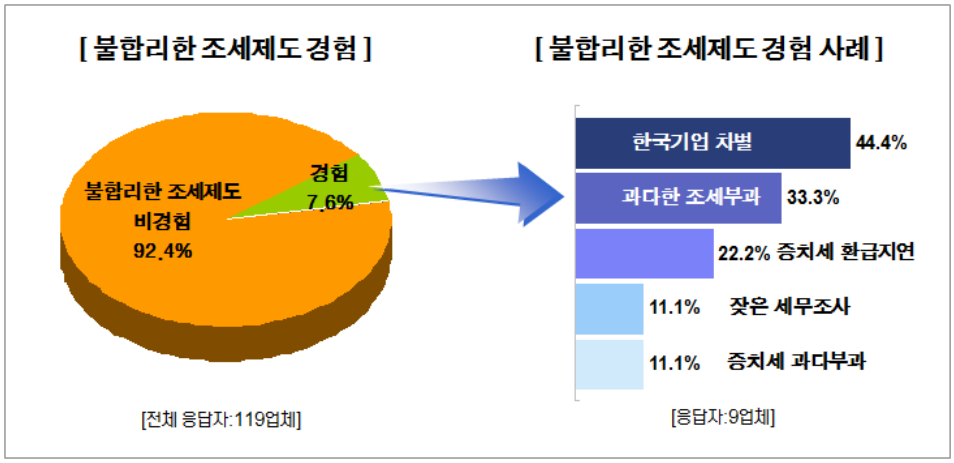
-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도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중국정부의 공적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⑥ 불합리한 조세제도 경험

• 중국 내에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경험한 업체는 응답업체의 7.6%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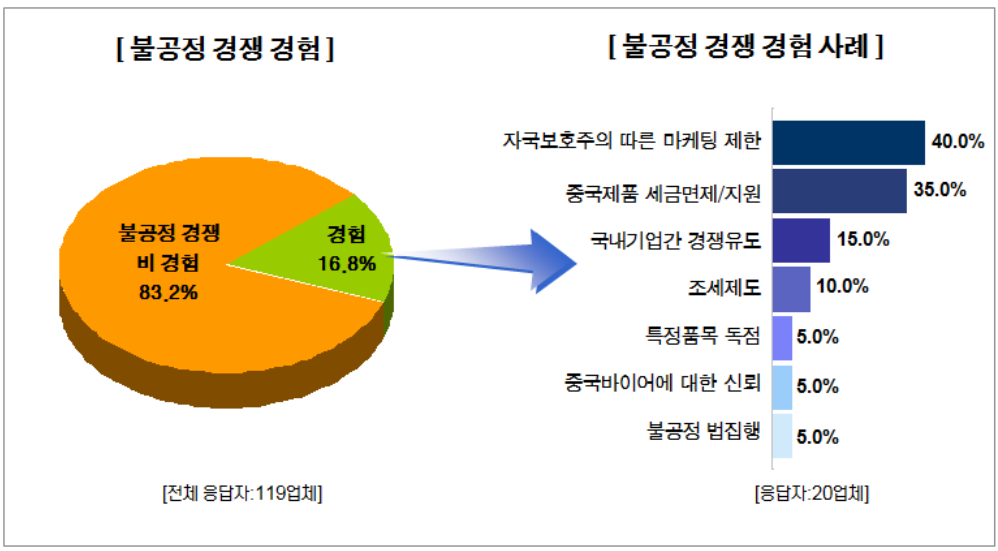
- 한국업체에 대한 차별(44.4%), 과다한 조세부과(33.3%), 증치세 환급지연 (22.2%)등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경험



⑦ 불공정 경쟁에 대한 경험

• 對중국 수출 시 응답자의 17%가 불공정한 경쟁을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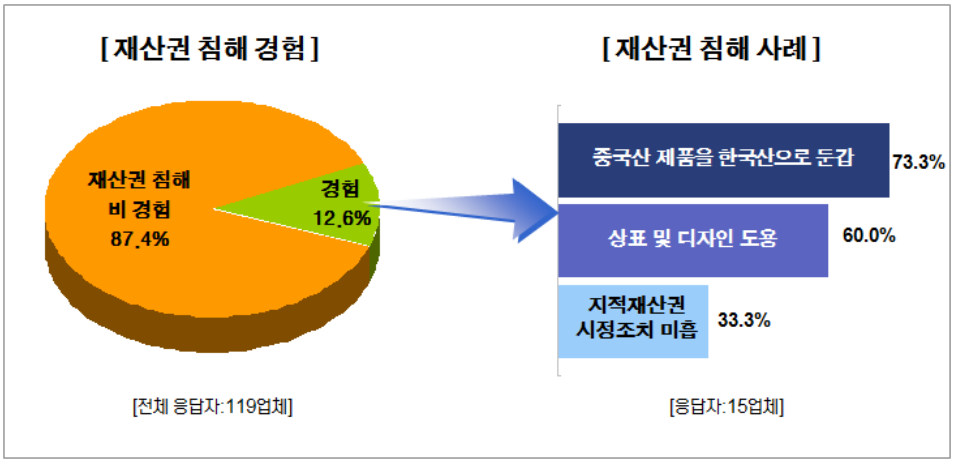
- 자국보호주의에 따른 마케팅 제한(40%), 중국제품 세금면제 및 지원(35%), 국내업체가 경쟁유도(15%) 등의 대한 불공정 경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⑧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

• 중국에 수출 시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은 약 13%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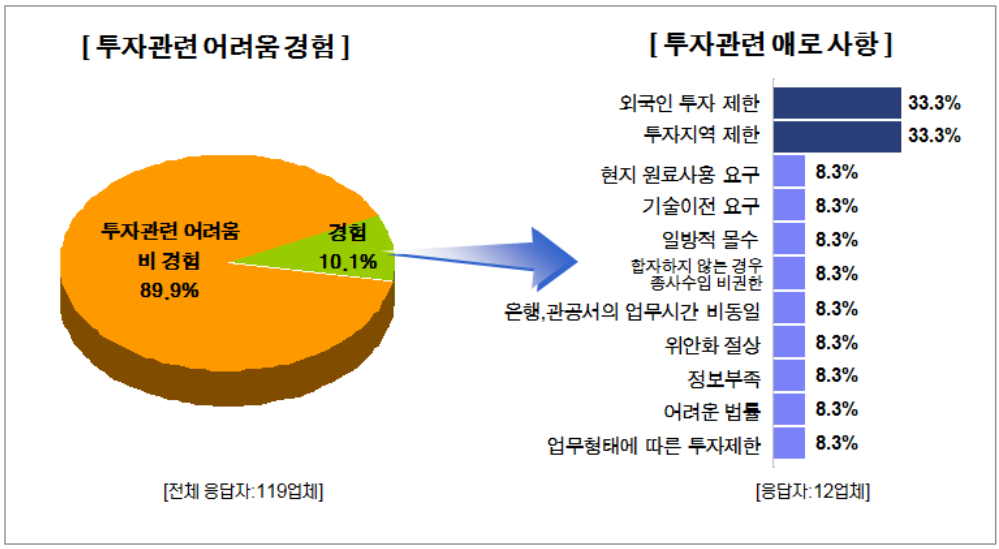
- 중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73.3%), 상표 및 디자인 도용(60.0%), 지적 재산권 시정조치 미흡(33.3%)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⑨ 투자관련 애로사항

• 중국내 투자 시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은 약 10%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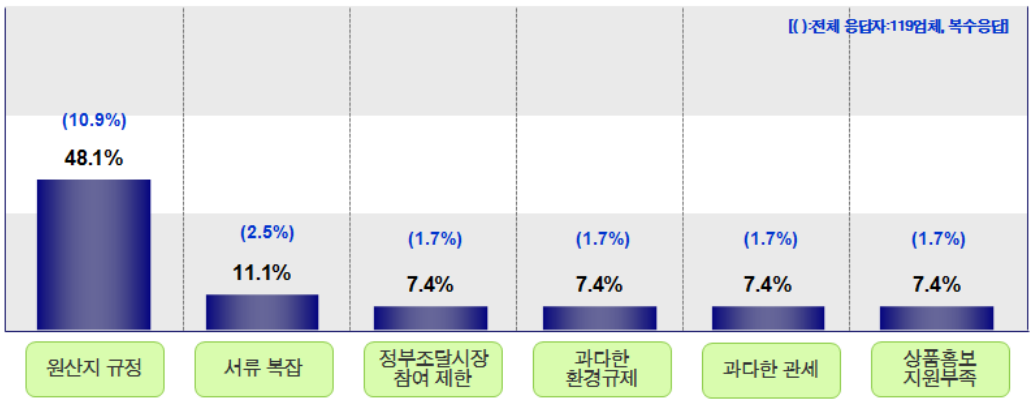
- 그러나 외국인 투자 제한(33.3%), 투자지역 제한에 대한 어려움(33.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⑩ 기타 애로사항

-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주요 수출 관련 항목별 이외 느끼는 애로사항은 크지 않지만, 주로 원산지에 대한 규정(48.1%), 서류복잡(11.1%), 정부조달시장 참여 제한(7.4%) 등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애로사항]



(응답자:27업체,복수응답, 일부 소수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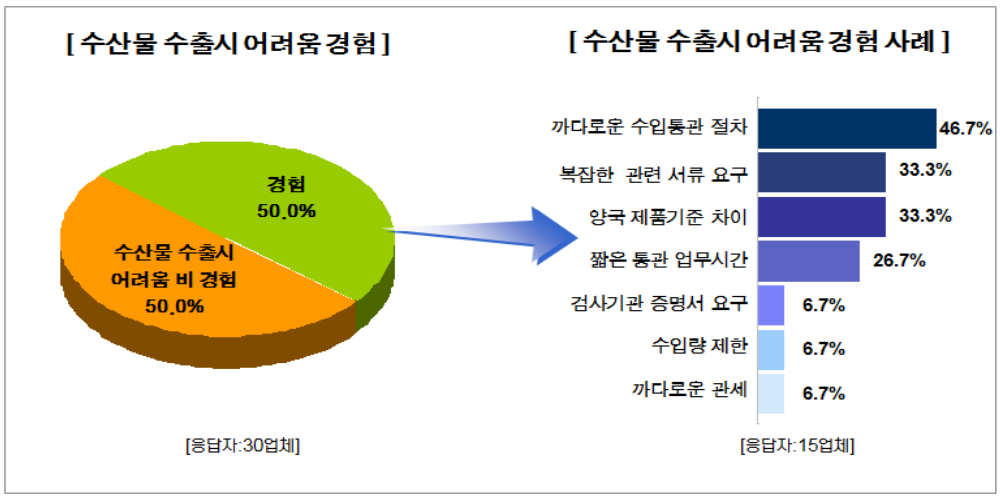
-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연간 수출횟수별, 수출 분야별, 수출지역 항구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대련항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한 애로사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무응답	농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6	1	19	1	3	6	15	5	7	4	8	6	14
원산지 규정 (%)	83.3	0.0	42.1	0.0	66.7	66.7	46.7	20.0	28.6	25.0	50.0	66.7	57.1
서류 복잡 (%)	0.0	100.0	10.5	0.0	0.0	0.0	13.3	20.0	28.6	25.0	0.0	16.7	0.0
정부조달시장 참여 제한 (%)	16.7	0.0	5.3	0.0	33.3	0.0	0.0	20.0	0.0	0.0	12.5	0.0	7.1
과다한 환경규제 (%)	0.0	0.0	10.5	0.0	0.0	0.0	13.3	0.0	14.3	0.0	12.5	0.0	0.0
과다한 관세 (%)	0.0	0.0	10.5	0.0	0.0	0.0	13.3	20.0	0.0	25.0	0.0	0.0	7.1
상품홍보 지원부족 (%)	0.0	0.0	5.3	100.0	0.0	0.0	13.3	0.0	14.3	0.0	0.0	0.0	7.1

3) 수산물 수출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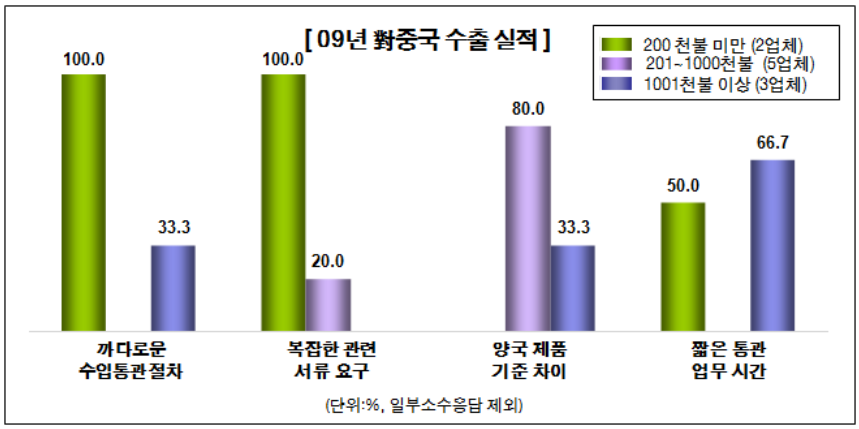
●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50%

■ 수산물업체들은 까다로운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관련 서류 요구, 양국 제품기준 차이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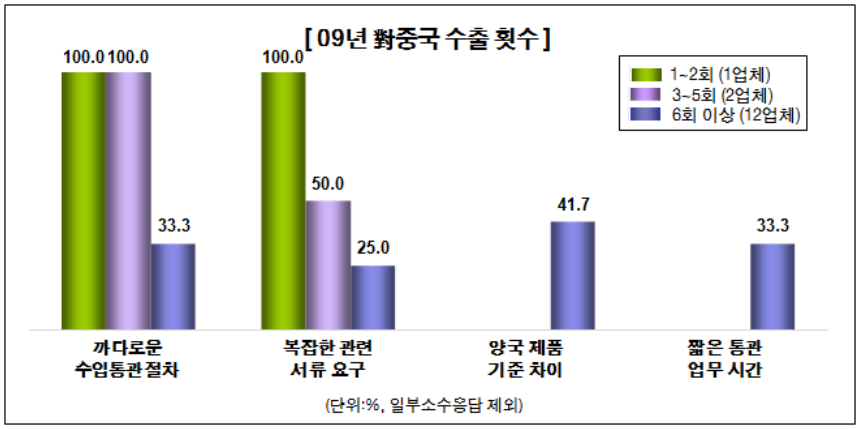
① 수출 실적별

• 수출실적이 적은 업체들의 경우, 까다로운 수입통관 절차와 복잡한 관련 서류 요구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의 경우 양국 제품 기준차와 짧은 통관 업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② 수출횟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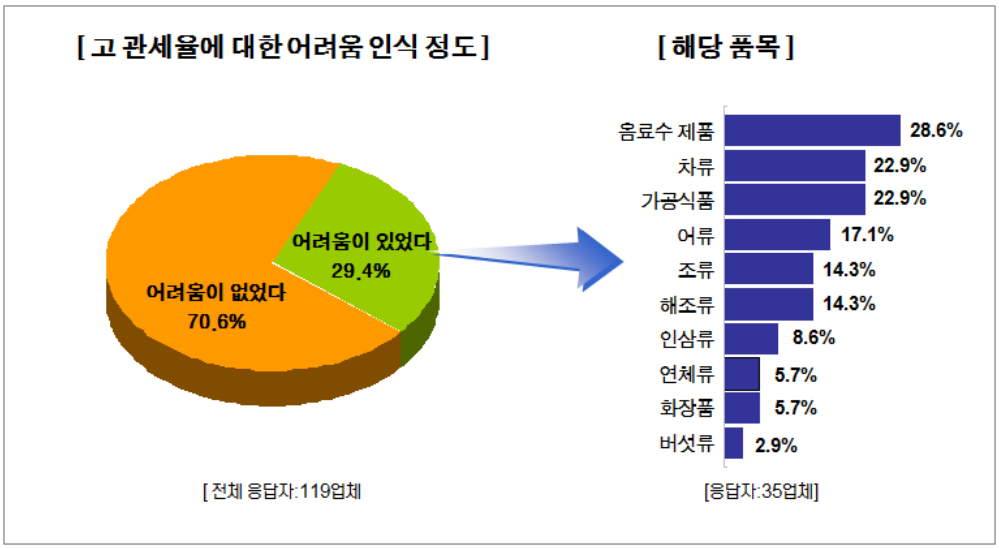
• 수출횟수가 적은 업체들의 경우 까다로운 수입통관절차, 복잡한 관련서류 요구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수출횟수가 많은 업체들은 양국제품 기준차이와 짧은 통관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 수출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인식

●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고관세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약 29%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고관세에 대해서 음료수 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차류, 가공식품, 어류, 조류, 해조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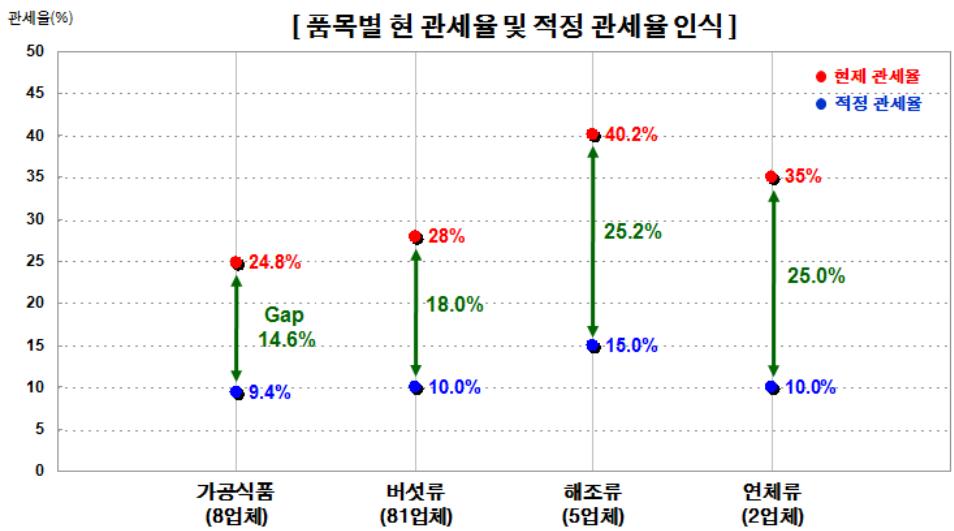


● 연간수출 횟수가 많은 업체들은 음료수제품, 가공식품, 어류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지역 항구별로는 상해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차류, 천진항은 음료수제품, 청도항과 대련항은 어류에 대해 관세율이 높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연간수출횟수			수출분야				수출지역항구				
	1~2회	3~5회	6회 이상	농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기타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4	3	28	3	7	26	2	10	7	9	10	18
음료수제품 (%)	0.0	33.3	32.1	0.0	0.0	38.5	50.0	30.0	42.9	22.2	20.0	27.8
차류 (%)	25.0	0.0	25.0	0.0	0.0	30.8	50.0	50.0	28.6	0.0	10.0	16.7
가공식품 (%)	0.0	33.3	25.0	0.0	0.0	30.8	0.0	10.0	14.3	22.2	30.0	11.1
어류 (%)	0.0	33.3	17.9	0.0	85.7	0.0	0.0	0.0	0.0	44.4	50.0	11.1
주류 (%)	25.0	0.0	14.3	0.0	0.0	19.2	0.0	40.0	14.3	22.2	0.0	11.1
해조류 (%)	50.0	0.0	10.7	0.0	57.1	11.5	0.0	0.0	0.0	11.1	10.0	27.8

● 수산물에 관한 관세율은 35~40%로 타 품목 대비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어 업체들은 관세율을 25% 정도 낮춰야 적당한 관세율이라 인식

■ 특히, 해조류는 현재 40%로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 15% 정도의 관세율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연체류는 현재 35%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 10% 정도의 관세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조류와 연체류 취급업체들의 현재 관세율과 희망하는 적정 관세율과의 인식의 Gap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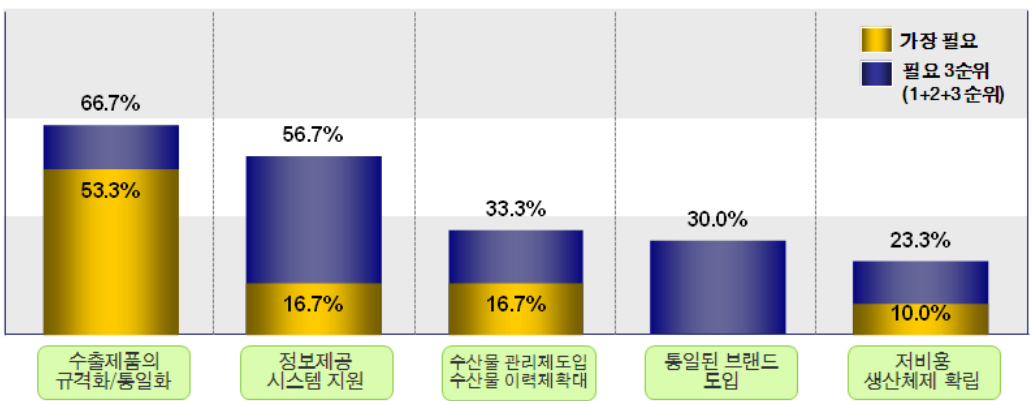
라. 對중국 수출시 문제점 및 개선요망사항

중국 수출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중국에 수출시 업체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 복잡한 통관절차, 과다한 세금·증치세 부과,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 및 느린 통관업무에 대해 개선을 희망했으며, 그리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수산물업체의 경우,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제품 규격화 통일을 위한 포장재의 개발 및 포장재 조달 비용 지원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정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지원(56.7%), 우수 수산물 관리제 도입/수산물 이력제의 전면적 확대(33.3)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수산물 수출 시 지원정책 및 관련제도 필요사항]



(응답자:30업체)

– 전반적으로 수출 실적별, 연간 수출 횟수별, 수출지역 항구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청도항과 대련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들은 수출제품 규격화 통일을 위한 포장재의 개발 및 포장재 조달 비용 지원과 정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필요 3순위 (1+2+3 순위)	'09년 對중국 수출실적				연간수출횟수			수출지역항구				
	200천불이하	201~1,000천불	1,001천불이상	무응답	1~2회	3~5회	6회 이상	상해항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	기타항
응답자 (업체)	4	9	6	11	5	4	21	2	2	13	10	23
수출제품 규격화통일 (%)	75.0	66.7	83.3	54.5	60.0	50.0	71.4	100.0	50.0	92.3	80.0	60.9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50.0	55.6	66.7	54.5	60.0	75.0	52.4	100.0	0.0	53.8	60.0	65.2
수산물관리제도입, 수산물이력제확대 (%)	25.0	33.3	0.0	54.5	20.0	50.0	33.3	0.0	0.0	30.8	30.0	39.1
통일된 브랜드 도입 (%)	0.0	55.6	33.3	18.2	20.0	50.0	28.6	50.0	0.0	30.8	40.0	34.8
저비용 생산체제 확립 (%)	50.0	33.3	16.7	9.1	20.0	0.0	28.6	50.0	50.0	23.1	20.0	21.7

한·중 FTA 협상시 제도개선 및 기타 요청사항

■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수출업체들은 무관세 및 세금 완화에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서류의 간소화, 수입검역 완화, 빠른 통관절차 및 간소화, 특히 일관성 있는 검역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가. 對중국 수출업체 응답자 특성

- 평균 수출 기간은 5.6년 정도며, 5년 미만 46.2%, 5~10년 미만 업체는 32.8%, 10년 이상 업체가 21.0%로 조사됨

- 연 평균 수출 횟수는 26.4회 정도로, 연 6~10회 정도 수출하는 업체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연 11~30회는 23.5%, 연 1~2회는 18.5% 순으로 조사됨

- 수출형태는 직접 수출형태를 취하는 업체가 80.7%이며, 간접 수출형태를 취하는 업체는 19.3%로 조사됨

- '09년 對중국 수출업체의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평균 184만2천불 정도로, 20만불 미만 26.9%, 20~100만불 미만 업체는 24.4%, 100만불 이상 업체가 16.8%로 조사됨

- 중국내 수출 항구는 청도항 34.5%, 상해항 32.8%로 많은 이용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련항(20.2%), 천진항(14.3%), 연태항(13.4%), 위해항(10.9%) 등의 순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내 수출 분야는 가공식품이 55.5%로 가장 많으며, 수산물 25.2%, 농산물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견과류가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삼류 30.0%, 버섯류 15.0%, 화훼류 10.0%, 과실류 5.0% 순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견과류는 밤 품목을, 인삼류는 홍삼, 인삼, 건삼, 뿌리삼등의 품목을, 버섯류는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품목을, 화훼류는 심비디움 품목을, 과실류는 사과, 배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어류가 6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연체류(56.7%), 해조류(13.3%), 갑각류(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어류는 고등어, 삼치, 전갱이, 방어, 명태, 동태, 건조해삼, 메가리 등을 취급하며, 연체류는 냉동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다리를 취급하며, 해조류는 김, 갑각류는 킹크랩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면류 19.7%, 음료 19.7%, 주류 18.2%, 차류 15.2%, 해조류 15.2%, 과자류 9.1%, 커피류 9.1%, 장류 9.1%, 유제품 7.6%, 당류 6.1%, 발효식품 3.0%, 프림 1.5%, 조미료 1.5%, 건어물 1.5%, 소스류 1.5%, 건강식품 1.5% 순으로 나타남

- 면류는 라면이 1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면류, 쌀국수, 국수 등임
- 음료는 과일음료, 비타민음료, 쌀음료, 알로에음료 등임
- 주류는 소주, 막걸리, 약주, 전통주 등임
- 차류는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알로에차 등임
- 과자류는 스낵/과자, 캔디, 홍삼캔디 등임
- 장류는 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 등임

나. 향후 對중국 수출확대 계획

● 응답자의 60.5%가 향후 對중국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8.4%로 나타나, 향후 對중국 수출 시장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 수출 확대 이유는 수요 증가 34.7%, 개척시장 증가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중국 수출 감소 이유는 단가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수산물, 기타 제품을 취급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향후 중국 수출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함

- FTA체결 후 對중국 수출 비중은 55.5%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비율은 37.0%, 감소할 것이라는 5.0%로 나타나, FTA 체결이 향후 업체들의 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인식

- 향후 FTA 영향을 제외한 상황에서 對중국 수출 비중 증가는 약 60.5%가 예상되고, FTA 체결로 인한 수출 비중 증가는 70.5%로 나타나,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농수산물 對중국 수출 비중이 약 10%p 정도의 수출증가가 예상됨

다. 對중국 수출시 애로사항

-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 12.6%가 원활하다고 생각하며, 60.5% 정도가 타 국가 대비 규제나 시장접근이 까다롭다고 인식

- 조사업체 중 약 76% 정도가 對중국 수출 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對중국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가공식품과 기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대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수입허가증 관련 사항 (68.3%) > 관세쿼터(25.0%), 긴급 수입제한(10.0%) > 수입금지(8.3%) > 수입쿼터(8.3%) > 반덤핑(8.3) 등으로 나타남

  2) **위생검사, 검역 상의 애로사항**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60.7%) > 검역기준 및 제도(42.6%) > 검역절차(21.3%) > 수입허용품목(19.7%) > 매번 위생발급 불편(3.3%) 등으로 나타남

3) 통관절차에 관한 애로사항

일관성 없는 통관 절차(62.5%) > 과도한 통관 심사(50.0%) > 자의적 관세 변경(10.0%) > 통관지역 제한(7.5%) > 이중세관 검사(5.0%) > 과도한 통관서류(5.0%) 등으로 나타남

4) 기술 장벽에 관한 경험

상품 라벨링 요건(75.0%) > 표준 및 기술규정 적용(30.0%) > 강제검사 및 중복적인 검사 요구(20.0%) > 특정 인증마크 의무적 획득(5.0%) > 수량문제(5.0%) 등으로 나타남

5) 상관행의 투명성에 관한 애로사항

대금결제 지연(40.0%) > 법적용의 투명성/통일성결여(33.3%) > 판매지역/거래처 제한 등 진입규제(23.3%) > 중국정부의 공적규제(23.3%) > 빈번한 법규 개정(20.0%) > 이중서류 요구(6.7%) 등으로 나타남

6)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경험

중국에 해외지사 또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7.6%로 낮은 수준이며,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한국업체 차별(44.4%), 과다한 조세부과(33.3%), 증치세 환급지연(22.2%) 등으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7) 불공정 경쟁 경험

중국 수출 시 불공정한 거래 경험은 16.8%며,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한 경우는 자국보호주의에 따른 마케팅 제한(40.0%), 중국제품 세금면제/지원(35.0%), 국내 업체간 경재유도(15.0%), 조세제도(10.0%) 등으로 나타남

8) 지적재산권 침해 경험

중국 수출 시 재산권 침해 경험은 12.6%이며, 재산권 침해 경험한 경우는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73.3%), 상표 및 디자인 도용(60.0%), 지적재산권 시정조치 미흡(33.3%)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9)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어려움

중국내 투자를 하는 업체 중 10.1%가 투자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33.3%), 투자지역 제한(33.3%) 등으로 나타남

10) 중국에 수산물 수출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절차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잡한 관련 서류요구(33.3%), 양국 제품기준 차이(33.3%), 짧은 통관 업무시간(26.7%)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11) 중국에 수산물 수출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련제도 관하여 업체들은 수출제품 규격화 통일(66.7%), 정보제공 및 시스템제공(56.7%), 수산물 관리제도입 및 수산물 이력제 확대(33.3%), 통일된 브랜드 도입(30.0%), 저비용 생산체제 확립(23.3%)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타) 중국 수출업체들이 고 관세율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29.4%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고 관세에 대한 애로사항은 음료수 제품, 차류 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對중국 수출비중은 현재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한 업체의 비중은 60.5%로 중국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 후 對중국 수출 비중 역시 70.5%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FTA 체결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수출하는 조사 업체 중 약 75.6% 정도가 對중국 수출 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對중국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수산물 수출시 느끼는 어려움에는 검역제도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규제 50.4%, 통관절차 33.6%, 상관행 투명성 25.2%, 기술장벽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검역제도 및 수출규제에 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역제도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은 일관성 없는 검역체계(60.7%), 그 다음으로 검역기준 및 제도, 수입 허용품목, 매번 위생발급 불편 등인 것으로 나타나 검역 제도나 절차, 체계 등의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별첨 : 설문지

SQ.1 **(조사 동의 여부 확인)** 000님께서는 중국시장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對중국 수출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본질문 진행)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틀린 답은 없으니, ○○○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2. 없다 → **(정중히 사과 후 면접중단)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다음은 귀사의 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사명		**'09 對중국 수출실적**	천불
응 답 자	성명 : 소속 : 직위 :		
	Tel : H • P : Fax :		
	E-mail :		
주 소	우편번호 :		

※ 다음부터는 귀사의 對중국 '수출 현황' 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1. 귀사의 對**중국 수출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1. 5년 미만　　2. 5년 이상~10년 미만　　3. 10년 이상

문2. 귀사의 對**중국 수출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직접수출　　2. 중개상을 통한 간접수출　　3. 기타(　　)

문3. 귀사의 **중국내 수출지역 항구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1. 상해항　　2. 천진항　　3. 청도항
4. 선전항　　5. 기타(　　)

문4. 귀사의 對중국 **수출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문4. 수출분야 (대분류)	1) 농산물	2) 수산물	3) 가공식품	4) 기타
문4-1. 세부 수출분야 (중분류)	① 과실류 ② 견과류 ③ 화훼류 ④ 버섯류 ⑤ 인삼류 ⑥ 채소류 ⑦ 기타____	① 어류 ② 연체류(오징어등) ③ 해조류 ④ 기타_____	① 당류 ② 면류 ③ 과자류 ④ 커피류 ⑤ 연초류 ⑥ 주류 ⑦ 음료 ⑧ 기타_____	① 기타____
문4-2. 구체적인 품목 (소분류)	_____	_____	_____	_____

문5. 귀사의 對중국 **연간 수출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컨테이너 선적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_____회

1. 연 1~2회　　2. 연 3~5회　　3. 연 5회 이상

문6. 귀사는 중국과의 **수출비중을 지금과 비교 했을 때**,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1. 지금보다 매우 축소할 계획이다　　2. 지금보다 약간 축소할 계획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계획이다　　4. 지금보다 약간 확대할 계획이다
5. 지금보다 매우 확대할 계획이다

문6-1. **(문6번의 응답 값)**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점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문7. 한국과 중국간 FTA 체결은 **농식품 수출 규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2. 지금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하거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지금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 다음부터는 귀사의 對중국 '수출 관련 애로사항' 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8. 귀사가 중국 수출 및 투자 등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이 다른 국가에 해 규제나 시장 접근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까다롭다　　2. 다소 까다롭다　　3. 보통이다
4. 원활한 편이다　　5. 매우 원활하다

문9. 귀사에서는 수출 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수입 금지　　2. 수입 쿼터　　3. 관세 쿼터
4. 반덤핑　　5. 긴급 수입제한
6. 수입허가증 관련 사항(기업정보 요구 등)
7. 없다　　8. 기타(　　)

문10. 귀사에서는 중국의 **위생검사, 검역제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검역기준 및 제도　　2. 검역 절차
3.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은 검역체계　　4. 수입허용 품목
5. 없다　　6. 기타(　　)

문11. 중국으로 수출 시 **통관절차(검사, 통관, 하역, 운송 등)에 있어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이중 세관 검사
2. 과도한 통관심사 및 절차의 복잡성, 불투명성
3. 통관지역 제한
4.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항구별,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처리 상이)
5. 관세분류의 자의적 변경
6. 특혜관세율 불인정
7.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수입신고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체금 부과)
8. 없다 9. 기타 ( )

문12. 귀사는 중국으로 수출 시 **기술장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상품 라벨링 요건(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부착 의무화, 라벨심사증서 의무화 등)
2. 표준 및 기술규정 적용(자체규정만 인정, 특정 식품첨가제 사용 금지 등)
3. 강제검사 및 중복적인 검사 요구
4. 특정 인증마크 의무적 획득
5. 없다 6. 기타( )

문13. 귀사는 중국으로 수출 시, **상관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거래처, 판매지역 제한 등의 진입규제
2. 중국 정부의 공적규제
3. 특정산업, 품목에 대한 중국 기업 담합
4. 대금결제 지연과 같은 거래관행
5. 법적용의 투명성 및 통일성 결여
6. 빈번한 법규 개정
7. 없다 8. 기타( )

문14. 귀사의 현지 진출 해외지사 혹은 자회사가 있다면, **중국 내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잦은 세무조사 2. 과다한 조세부과
3.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지연
4.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이전가격 심사강화
5. 기타( )

문15. 귀사는 중국으로 수출 시, **불공정한 경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자국산 제품 대한 세금면제 혹은 지원금 제공(자국 제품에 대해 유리한 경쟁조건 형성)
2.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마케팅 제한
3. 특정산업, 품목에 대한 중국 기업 독점
4. 없다 5. 기타( )

문16. 귀사는 중국에 수출 시,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중국산 상품에 'Made In Korea'를 표기해 한국산으로 둔갑
2. 상표 및 디자인 도용
3.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정조치 미흡
4. 없다 5. 기타( )

문17. 귀사가 중국에 수출 시,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1.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2. 투자지역 제한
3. 현지 원료사용 요구 4. 기술이전 요구
5. 없다 6. 기타( )

문18. 그 외에 중국으로 수출 시 **기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 원산지 규정(차별적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요구, 무리한 원산지 표시요구 등)
2. 정부조달시장 참여제한(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및 중국산 우선 사용)
3. 과다한 환경규제조치 4. 기타( )

문19. (**수산물수출업체만**) 현재 귀사에서는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사항들인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수입 통관 절차 까다로움
2. 복잡한 관련 서류 요구
3. 일일 실제 통관업무 가능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공휴일 세관업무 하지 않음)
4. 중국 자체의 수산물 제품 기준이 있어 한국의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
5. 안전성 검사 시 자국 검사기관의 증명서만 요구
6. 수입량에 쿼터를 두고 수입총량을 제한
7. 없음 8. 기타( )

문20. (**수산물수출업체만**) 귀사의 수산물의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對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 및 관련 제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양식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의 정비, 종묘 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저비용 생산체제 확립
2. 우수수산물관리제(GFP) 도입과 수산물 이력제(STS)의 전면적 확대
3. 수출 제품의 규격화·통일화를 위한 포장재의 개발 및 포장재 조달 비용 지원
4. 국가별, 품목별,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정보 제공(정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5. 우리나라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통일된 브랜드 도입
6. 기타( )

문21. 귀사는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이 너무 높아 중국시장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어려움이 있었다 → 문21-1 이동
2. 어려움이 없었다 → **문22번으로 이동**

문21-1. 애로사항이 있었던 품목은 무엇이며,

문21-2. 그 품목의 관세율은 몇%이며(애로사항 품목에 대한 관세율 모두 기입)

문21-3.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애로사항 품목에 대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품목 모두 기입)

문21-1. 어려움이 있었던 품목은?	문21-2. 해당 품목의 현재 관세율	문21-3.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관세율
①	① %	① %
②	② %	② %
③	③ %	③ %
④	④ %	④ %
⑤	⑤ %	⑤ %

문22. 상기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수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현황 및 문제점, 개선요망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문23. 귀사의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FTA 등 농수산물 관련 협상시, 요청할 제도 개선 사항 혹은 기타 요청

_____